

## HEADLINE NEWS

###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卍의 재정 강화 (버지니아卍)

미국 버지니아卍 교통부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해 卍의 재정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卍의 재정수입에 일조하는 대상은 도로망 및 가스, 전기, 수도 등의 각종 관망의 유지관리를 도와주는 RUMS(Right of Way and Utilities Management System)로 1999년에 卍교통부의 주도하에 개발된 소프트웨어이다. 卍교통부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후 캘리포니아卍 교통부가 이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시스템의 시장가치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적재산으로 등록하였다. 이후 미네소타卍와 메인卍에서 RUMS를 구입하여 해당 卍에서 필요로 하는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버지니아卍 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몇 년 이내에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정부기관에 판매하여 1천 2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 수입은 모두 교통 관련 부문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www.govtech.net/?pg=magazine/story&id=92321](http://www.govtech.net/?pg=magazine/story&id=92321))

## HIGHLIGHTS

### 도시관리

- ① 스마트 성장을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도입 (매사추세츠卍)
- ② 성공적인 내부도시의 근린 재활성화 프로그램 (필라델피아)

### 도시환경

- ③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 도입 (유럽연합)
- ④ 2007년까지 도심에 7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샌안토니오)

### 도시교통

- ⑤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대책 추진 (워싱턴 D.C.)
- ⑥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위해 새로운 주차정책 추진 (상하이)
- ⑦ 교통량 감축을 위해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도입 (캘리포니아卍: 오글랜드市)
- ⑧ 화물교통계획 수립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시도 (시카고)
- ⑨ 원활한 도로사업을 위해 교통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로리다卍: 팜비치 카운티)
- ⑩ 모범적인 대중교통 웹사이트 선정 발표 (미국 전역)
- ⑪ 난폭운전 다발구간 파악을 위해 시민제보 웹사이트 개설 (워싱턴卍)

### 사회복지·문화

- ⑫ 도시내 직장여성을 위한 탁아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실시 (동경)
- ⑬ 공공도서관, 비영어권 출신 주민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모집 (오스틴)

### ① 스마트 성장을 위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 도입 (매사추세츠주)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2005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프로그램인 'Chapter 40R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Law'를 통해 스마트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의 지자체들이 '스마트 성장 구역(Smart Growth District)'으로 지정된 구역에 고밀 주거지개발을 허용하도록 용도지역 지구제를 변경하여 '소유할 만한 주택(Affordable Housing)'을 공급할 경우 주택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또한 지자체가 스마트 성장 구역을 설정할 경우 주정부는 상하수도 및 교통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스마트 성장 구역 대상은 도심, 교외 중심가, 트랜짓 정류장 주변, 공장 이전 적지 등이다.

([www.boston.com/news/education/k\\_12/articles/2004/12/28/little\\_support\\_for\\_smart\\_growth](http://www.boston.com/news/education/k_12/articles/2004/12/28/little_support_for_smart_growth))

### ② 성공적인 내부도시의 근린 재활성화 프로그램 (필라델피아)

미국 필라델피아시는 '근린 재활성화 프로그램(NTI: Neighborhood Transformation Initiative)'을 통해 내부도시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TI 프로그램은 쇠퇴한 내부도시 재건을 위해 John Street 필라델피아 시장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2007년까지 총 16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다. NTI 프로그램은 내부도시의 버려진 건물 철거 및 주거환경 개선, 낙후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도시의 쇠퇴한 주거지 재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www.philly.com/mld/inquirer/news/local/10545751.htm](http://www.philly.com/mld/inquirer/news/local/10545751.htm))

([www.phila.gov/nti/whatisnti.htm](http://www.phila.gov/nti/whatisnti.htm))

### ③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 도입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25개 회원국은 교토협약에 근거하여 2012년까지 탄소 대기오염물질을 1990년 수준의 8%까지 낮추기로 협약하고, 2005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도란 대기오염 배출권(Pollution Credits)을 사고파는 것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가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이량을 배출할 경우 대기오염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 배출권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은 더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이 제도는 대량으로 탄소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전력회사, 정유공장, 중금속 공장 등에 우선 적용되며, 2008년부터 중화학 제조업체, 알루미늄 공장, 항공기 등에도 적용된다. 자동차와 주거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news.ft.com/cms/s/1c92b558-5cf7-11d9-bb9c-00000e2511c8,dwp\\_uuid=d4f2ab60-c98e-11d7-81c6-0820abe49a01.html](http://news.ft.com/cms/s/1c92b558-5cf7-11d9-bb9c-00000e2511c8,dwp_uuid=d4f2ab60-c98e-11d7-81c6-0820abe49a01.html))

### ④ 2007년까지 도심에 7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샌안토니오)

미국 샌안토니오(San Antonio)시는 향후 3년에 걸쳐 700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다. 이 식목프로그램은 시가 2007년까지 도심에 나무 그늘을 5%씩 늘리기로 한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우선 6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 이 식목프로그램은 샌안토니오시 개발과가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으며, 공원여가과, 텍사스산림청, 관련 시민단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 샌안토니오시 개발과와 텍사스산림청이 공동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심의 통행로에는 2,000그루 이상의 가로수가 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5백만 달러가 넘는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도심의 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하여 도시의 통행로에 약 700그루의 나무를 더 심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www.sanantonio.gov/news/NewsReleases/nrtreeplanting.asp](http://www.sanantonio.gov/news/NewsReleases/nrtreeplanting.asp))

### 5]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대책 추진 (워싱턴 D.C.)

미국의 워싱턴 D.C. 도심부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들이 현재 추진중이다. 도심부내 사업자,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완화대책으로는, 공무원들에게 제공되어 왔던 주차장 무료 이용권 없애기, 도심부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신호를 관할하는 경찰관의 배치 등이 있다. 또한, 그 동안 주차미터기가 설치되지 않았던 하역주차 구간에 주차미터기를 설치하여 화물차량의 주차시간을 규제하는 방안과 도심부내 순환버스 도입 등도 검토되고 있다. 태스크포스팀은 이러한 정책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곧바로 추진할 예정이다.

([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5673-2004Nov22.html?sub=AR](http://www.washingtonpost.com/wp-dyn/articles/A5673-2004Nov22.html?sub=AR))

### 6] 도심부 교통혼잡 완화 위해 새로운 주차정책 추진 (상하이)

중국의 상하이시 당국은 도심부내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새로운 주차정책 도입을 추진중이다. 우선 도심부내 주차요금을 주변 지역보다 높게 책정하여 차량 이용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차지역의 특성별(주거지, 호텔, 상업지 등)로 상한 및 하한 요금을 설정할 예정이며, 주차 상한 시간을 설정하여 도심부내 장기 주차를 억제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차정보 안내시스템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차량의 통행을 줄일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부내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여개의 주차시설을 만들 예정이나, 향후 주차면수의 총량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다.

([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2/23/content\\_402626.htm](http://www.chinadaily.com.cn/english/doc/2004-12/23/content_402626.htm))

### 7] 교통량 감축을 위해 스마트 주차안내시스템 도입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에서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스마트 주차안내 시스템을 곧 가동할 예정이다. 이 주차안내시스템은 일반 도로구간의 교통정보 안내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어 인접 전철역 환승주차장의 주차 가능면수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게 된다. 이렇게 하면 혼잡한 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대중교통으로 수단을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일부 주차면수에 대해서는 전화 혹은 인터넷을 통한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여 환승 주차장 이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스마트 주차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일이며, 현 단계의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될 경우 다른 대중교통시스템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news/transportation/10358320.htm](http://www.contracostatimes.com/mld/cctimes/news/transportation/10358320.htm))

### 8] 화물교통계획 수립을 통한 교통혼잡 완화 시도 (시카고)

미국 시카고의 시민단체인 'Chicago Metropolis 2020'은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 내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2030년도를 목표년도로 하는 화물교통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은 시카고 대도시권 지역의 인구와 화물차량 통행의 급격한 증가로 향후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제안되었고, 최근 수십년간 이 지역에서는 연구되지 않았던 화물교통과 토지이용, 그리고 경제활동과의 관계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교통혼잡 완화방안은 혼잡 도로구간에서의 전자 통행료징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첨두·비첨두를 구분하는 가변통행료 부과, 교외지역에 화물센터 건립, 철도의 화물수송 분담률 증진 등이 있다. 관계자는 이 계획이 추진될 경우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 절감과 70억 달러 상당의 생산성 증진, 2만 3천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www.prnewswire.com/cgi-bin/stories.pl?ACCT=109&STORY=/www/story/12-20-2004/0002669448&EDATE](http://www.prnewswire.com/cgi-bin/stories.pl?ACCT=109&STORY=/www/story/12-20-2004/0002669448&EDATE))

### 9] 원활한 도로사업을 위해 교통계획 데이터베이스 구축 (플로리다주: 팜비치 카운티)

미국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카운티는 최근 도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교통계획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계획중이거나 추진중인 도로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 기간, 주관부서, 연락처, 담당자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특히 정부 주도의 도로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사업과 각종 도로매설물 관련 공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사업 주체간의 상호협력적인 사업시행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계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축적의 지도 서비스와 함께 5년 이내의 장래 도로사업 계획도 제공되고 있다.

([www.pbcgov.com/PubInf/News\\_Room/12-04/12-10-04\\_ctti.htm](http://www.pbcgov.com/PubInf/News_Room/12-04/12-10-04_ctti.htm))

### 10] 모범적인 대중교통 웹사이트 선정 발표 (미국 전역)

미국의 연방 대중교통국(FTA: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은 최근 모범적인 대중교통 웹사이트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이 행사는 미 전역의 1,455개 대중교통 정보제공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정보제공의 다양성, 이용의 편리성 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했고, 그 중 4개의 최고 웹사이트를 선정하였다. 관계자는, 대중교통 정보제공 웹사이트는 고객지향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한 요소로, 승객의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하고,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경감시켜 다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www.fta.dot.gov/14805\\_ENG\\_HTML.htm](http://www.fta.dot.gov/14805_ENG_HTML.htm))

# 도시교통/사회복지·문화

## ■ 세계도시동향 ■

### ④ 난폭운전 다발구간 파악을 위해 시민제보 웹사이트 개설 (워싱턴주)

미국의 워싱턴주 경찰당국은 난폭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도로구간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최근 개설하였다. 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난폭운전 행태, 도로구간 등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올릴 수 있다. 관계당국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난폭운전 다발지점을 파악하고, 이들 지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주 경찰당국은 최근 난폭운전 단속팀(ADAT: Aggressive Driving Apprehension Team)을 창설하였으며, 이 웹사이트에 제보되는 자료를 토대로 이 팀의 운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www.wsp.wa.gov/newsfaqs/releases/nr120604.pdf](http://www.wsp.wa.gov/newsfaqs/releases/nr120604.pdf))

### ④ 직장 여성을 위한 탁아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실시 (동경)

2001년 이전까지 일본 東京都에서는 하루 11시간 동안만 탁아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일부는 탁아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자, 都는 2001년 이 제한규정을 보다 완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시간 이상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은 약 230개에 이르고 있고, 이 중 탁아시설이 기차역사 내에 위치하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다.

심바시驛 근처에 위치한 화장품제조사인 시세이도社에서 운영하는 탁아시설도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여직원이 많은 이 회사의 특성상 직원복지 차원에서 탁아시설 운영을 시작했는데, 현재는 주변 회사의 직원자녀도 수용하고 있으며, 운영은 전문적인 탁아회사가 맡고 있다. 시세이도社는 이런 탁아시설을 점점 확충하고 있고, 탁아시설에 아이를 계속 맡기는 여직원의 경우 노동시간을 단축해 주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약 1000여명의 여직원들이 이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다. ([home.kyodo.co.jp/all/display.jsp?an=20041221040](http://home.kyodo.co.jp/all/display.jsp?an=20041221040))

### 공공도서관, 비영어권 출신 주민에게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 모집 (오스틴)

미국 오스틴市の 오스틴공공도서관(Austin Public Library)은 교양·문화프로그램인 'Talk Time'을 이끌어갈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Talk Time'은 오스틴 시민들 중에서 비영어권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를 가르치는 도서관 프로그램이다. 2005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되는 'Talk Time'의 봄학기 강좌는 오스틴공공도서관 중 5개 도서관에서 실시된다. 'Talk Time'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게 될 자원봉사자는 매주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참가자들이 활발히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영어에 능숙해야 하고,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강의법과 함께 인내를 갖고 들어줄 수 있는 자질과 적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오스틴공공도서관은 'Talk Time' 이외에 시민교육, 컴퓨터강좌 등 다양한 교양·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www.ci.austin.tx.us/library/i\\_ttvolunteer.htm](http://www.ci.austin.tx.us/library/i_ttvolunteer.htm))